

나주시 에너지밸리 3076억 투자 협약

서울서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 3개사 '탄소중립·분산에너지' 사업 4개 기업 76억 투자 공장 설립

나주시가 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에너지밸리(Energy Valley) 규모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5년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를 통해 307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 분야 투자협약과 기업 투자유치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스리엠, 리커런트에너지, 영산에너지개발은 '탄소중립·분산에너지' 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은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용을 실천하려는 한국스리엠 나주공장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산강 간척지인 동강면에 들어설 예정인 '주민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나주형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인을 구축하고,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대, 사회적 가치 창출,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투자유치 협약도 이어졌다. ㈜에이케이파워, ㈜메타에너지프린터이, ㈜그리네플, ㈜메타플라이 등 4개 기업은 에너지밸리산단 등에 76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에너지 특화 인력 양성



윤병태(맨 왼쪽) 나주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나주 에너지밸리 '2025수도권투자유치로드쇼' 행사장에서 '에너지밸리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에너지밸리
지난 2014년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혁신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에너지산업 집적화 단지를 말한다.

을 위해 나주공고를 에너지산업 특성화하고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전남도교육청, 지역기업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도 체결했다.

에너지밸리 홍보관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업 투자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나주의 투자 매

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에너지밸리와 에너지 4대 특구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864억원 규모의 기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37만평 규모의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38만평 규모의 노안일발산단 조성 현황 등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에너지기업을 위해 모든 인프라를 갖춘 투자의 최적지"라며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가 기관·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꿈키움바우처사업 최대 10만원 청년 수당 지급

장성군은 올해도 지역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꿈키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성에 주민등록을 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여가·교육 관련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9~13세 연 7만원', '14~18세 연 10만원' 등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존에 바우처카드를 사용 중인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포인트가 자동 충전된다.

올해 신규 대상자인 2016년생 청소년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지역 청소년 2847명에게 2억 2100여만원을 지원했다. 포인트는 서점·문구, 이미용, 안경·교복·사진, 예체능학원 등으로 사용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 17일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이상익(가운데) 군수가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청년 정책에 청년 목소리 듣는다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함평군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7일 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협의체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지역 청년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시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된다.

회의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위원 위·해촉 ▲분야별 분과(일자리·교육·복지·문화)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조사 ▲2025년 주요 일정 계획 등을 협의·확정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준공한 청년센터 내부 공간 조성과 관련해 익산 청년 시정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접목할 것을 함평군에 요청했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강진쌀귀리 K-누룽지 유럽 간식 시장 진출

표고·묵은지누룽지 첫 수출 선적

강진군의 누룽지 브랜드 '오트라이스(OATRICE)'가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강진 쌀과 쌀귀리를 주원료로 만든 강진 쌀귀리 표고누룽지와 묵은지누룽지는 이미 국내에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오트라이스는 지난 19일 전라남도브랜드관을 통해 유럽 아마존을 향해 첫 선적을 했다.

윤영진 믿음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24년부터 해외 시장에 조금씩 제품을 선보인 결과 미국과 유럽 현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강진의 우수한 농산물과 전통 누룽지 맛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합성첨가물 미사용, 국내산 쌀과 쌀귀리 사용, 당류 제로인 수제 누룽지로서 식이섬유와 단백질, 칼슘 등이 풍부한 건강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도 강진쌀귀리가 역으로 해외



강진 쌀귀리 누룽지 간식.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한 믿음영농조합법인의 도전에 찬사를 보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강진 쌀귀리 표고누룽지와 묵은지누룽지가 현지 유럽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전라남도 대표 로컬브랜드로 세계 시장에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출시 제품은 '남도장터'와 '초록민감장'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치매 고위험가구 AI돌봄 '다솨이' 설치

담양군은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다솨이'를 치매 고위험 가구 23곳에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담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다솨이를 통해 고위험군 가구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솨이는 음성명령을 인식해 간단한 대화와 치매 환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 환자와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게 된다. 또 실시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해져 치매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2022년부터 돌봄로봇 60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 상담과 가정 방문 모니터링, 치매예방 운동을 통해 주민 건강



담양군 관계자가 주민에게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다솨이'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증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솨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매 예방과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19세 청년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예술패스사업 15만원 지급

장흥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 문화 분야 공연·전시 등 관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 지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발급 기간은 오는 3월 6일~5월 31일이며, 6월 30일까지 한 번도 공연 또는 전시를 관람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신청·발급 후 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공연·전시 티켓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이 경험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고장에도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